



**포커스**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전망**  
 이 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p>▶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p>	<p>▶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p>	<p>▶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커스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전망</li> <li> 통일 돋보기 견학가고 싶은 북한 문화재</li> <li> Today 남북 북한의 화장품과 미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여는 사람들 "남북한 사람 모두 웃을 수 있는 웹툰 만들어요"</li> <li> 통일 Talk 직접 만들어 함께 즐기는 '당찬 초딩'들의 통일활동 체험기!</li> <li>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북한 친구 남한 상봉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낌 있는 여행 버려야 할 찬란하고 황홀했던 어제의 미려 경북 청송</li> <li> 통일 웹툰 가을뽕꾸기 같은 소리 말아요!</li> <li> 통일 레시피 고소한 개성배추 제대로 담은 개성보쌈김치</li> </ul>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지나호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신청**
**구독해지**
**웹진개선의견**

<p><b>통일 플러스</b> 포커스 통일 돋보기</p>	<p><b>통일 스토리</b>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b>남북공감</b> 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p><b>민주평통365</b> 제17기 해외지역회의 해외 자문위원 인터뷰 NUAC 뉴스</p>	<p><b>즐거움 통일</b> 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b>심표, 느낌표</b>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전망

이 호 령 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은 올 연초부터 4차 핵실험(1.6)과 광명성 장거리 시험발사(2.7)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의 방침이 경제가 아니라 핵에 있음을 보여주고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에 속도를 냈다. 지난 3월 2일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통과에도 불구하고,金正은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3.9)하고, 이후 탄두 재진입체 발열시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 고체연료 로켓 엔진시험, 신형 ICBM 엔진 시험, SLBM 시험발사,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스킨드 ER 시험발사 등 3월 9일부터 9월 9일 5차 핵실험까지 6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두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김정일 통치 18년 동안 발사했던 횟수를 훨씬 넘어선 것이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과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맞서겠다는 모험주의로 나가고 있다. 더욱이 이용필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국장은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6차, 7차, 8차 핵 실험을 할 수 있으며 유엔, 미국의 제재도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만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실험 폭발 능력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적으로 히로시마 원폭 수준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1차 핵실험(10.9)을 단행한 지 만 10년이 지난 지금, 0.8킬로톤(kt)의 위력에서  $10 \pm 2$ kt, 많게는 20kt 위력까지 북한의 핵실험 폭발능력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의 위력이 15kt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은 기술적으로 히로시마 원폭 수준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8개월 만에 4차 핵실험 위력(6kt) 대비 약 2배 정도의 위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은 핵분열 기술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안정화되어 간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5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으로 …(중략)…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기술로 …(중략)…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중략)…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가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즉 ‘5MWe 원자로 가동을 통해 제한된 플루토늄(Pu)을 얻는 생산체제에서 원심분리기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HEU)의 생산체제로 전환됐으며, 핵탄두를 표준화 규격화시킴으로써 스킨드, 노동, 무수단, 북극성(SLBM), KN-08/14 등의 미사일 탄두에 탑재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북한 5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경축대회(9.13)

북한은 남한 사회에 대화 제의와 핵 미사일 도발을 통해 남남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사드 배치 및 한미 연합훈련을 이슈화시킴으로써

## 남한 사회 내부 및 한·중, 한·러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증폭핵분열탄 기술을 확보한 이상 다음 수순으로는 핵융합에 기초한 수소탄을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지난 4차 핵실험을 '시험용 수소탄' 시험이라 언급함으로써 수소탄 개발의 수순을 이미 밟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스커드, 노동, 스커드 ER, 북극성, 무수단 미사일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탄두의 표준화 규격화와 더불어 정확도 향상과 사거리 증대 등을 통해 우리의 전략 목표를 비롯해 미국을 겨냥한 공격 위협의 신뢰성을 증대시켜나가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질주는 결국 북한이 추구하는 3대 혁명역량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당위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남한사회에는 대화제외와 도발을 통해 남남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사드배치 및 한미연합훈련을 이슈화시킴으로써 남한 사회 내부 및 한·중, 한·러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북한이 대남전략을 수행하는데 국제혁명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뒤에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이 숨어 있는 것이다.



▲ 지난 9월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우리의 대응은 북한의 이러한 3대 혁명역량이 달성될 수 없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단단하게 단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안보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향한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견학가고 싶은 북한 문화재

“맨날 가는 경주 불국사 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역사유적지구로 수학여행 가고 싶어요!”

남북분단이 길어지면서 북한을 ‘별나라’ 쪽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청년들이 늘어났지만, 북한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 역사책에서 한두 번쯤은 이미 봤을 법한 익숙한 곳들이 많다.

통일은 이처럼, ‘절반이나 가려진 역사 현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 01 고인돌 무덤 10,000기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무덤 또는 제단, 고인돌. 세계 7만여 기 중 3만 기가 남한에, 1만 기가 북한에 있다고 한다. 최근 북한은 라선시 선봉지구에서 고인돌, 살림집터 등 유물 1천여 점이 발굴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진은 평안남도 석천산 고인돌)

## 02 안악3호분

황해도 안악군에서 발굴된 3기의 무덤 중 하나, 안악 3호분. 무덤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다양한 생활상이 담겨져 있다. 안악 3호분 근처에 위치한 1호와 2호분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200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 평양성 04

남한에 송례문이 있다면, 북한에는 국보유적 제1호인 평양성이 있다. 평양은 427년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펼치며 고구려의 수도역할을 했다. 평양성은 6세기 후반에 지어졌으며 바깥 성벽 둘레의 길이는 약 16km이다.

## 동명왕릉 03

평양 근교 제령산 기슭에 위치한 고구려 동명성왕(고구려 시조)의 무덤. 수도 천도시 이곳으로 옮겨져 왔다. 왕릉 주변엔 200~300년 넘는 소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소나무가 제주도에서 왔다는 사실이다.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재됐다.



## 05 만월대

고려시대 궁궐터인 만월대는 아직 발굴 중이며 현재까지 금속활자, 명문기와, 청자 등 3,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발굴작업은 2007년 남북공동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관계 악화로 북한이 단독 추진 중이다.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 06 선죽교

포은 정몽주의 절개를 상징하는 개성 선죽교. 정몽주는 조선 개국에 반대하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후 재평가되어 선조 6년에는 옛 집터에 송양서원을 세우기도 했다. 이 서원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원이자 개성 최고(最古)의 건물이다.



## 함흥 본궁 08

함흥자사(威興差使)라는 말의 유래가 된 함흥 본궁. 흥남시에 있는 조선시대의 궁궐로 이성계가 왕이 된 후 조상들이 살던 집터에 세운 사당이며, 이성계가 아들 방원(태종)과의 갈등으로 함흥에 내려와 살던 당시의 거처이기도 하다.

## 묘향산 보현사 07

한국 5대 사찰 중의 하나로 꼽히는 보현사(평안북도 묘향산 소재)는 고려시대의 사찰로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아 왜적에 맞섰던 서산대사가 입적한 곳이기도 하다. 묘향산은 평양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명소 중 하나이다.

(사진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 남북한 사람 모두 웃을 수 있는 웹툰 만들어요 ”

탈북 웹툰작가 최성국



‘로동신문 넘 웃기지만 넘 슬프네요. (남한 사람들과 탈북민 사이에) 저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니 북한에서 온 분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겠어요~’, ‘작가 동지 내래 10점 만점 주갠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게재된 웹툰(인터넷 만화) ‘로동신문’에 달린 댓글들이다. 남한적응 7년차인 최성국 작가는 ‘재미있고 신선한데, 묘하게 슬픈’ 탈북민 만화를 연재하며 젊은 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탈북민의 남한정착기와 과거 북한에서의 일상 등의 소재를 웃음으로 승화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가 남는 웹툰이다.

### 열혈 남한 정착기 ‘로동신문’ 웹툰 연재하는 탈북 만화가

웹툰 ‘로동신문’에서는 ‘결혼합시다’ 에피소드에 이어 ‘국정원 이야기’가 매주 연재되고 있다. 이 만화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 코너에서 시작했고 두 달이 채 안 돼서 ‘베스트도전’ 단계로 승격했다. ‘정식 웹툰 코너도 아니지 않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도전 만화에 이름을 올린 아마추어 작품이 무려 11만5천 개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어머머마한 경쟁률을 뚫고 승격된 셈이다. 게다가 평점 역시 10점 만점에 가깝고, 프롤로그는 5만여 회 가량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결혼합시다’에서는 탈북민 용철 씨의 눈에 비친 남한 문화를 배경으로, 동료 여직원의 사소한 친절을 오해해 청혼까지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렸다. ‘국정원 이야기’에서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갖는 편견과 두려움 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려냈다. 특히 북한말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중간 중간에 녹여냄으로써 남한 사람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리 대단할 것도 없고, 예쁘거나 잘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탈북민들이 등장하는 만화인데 남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 유머러스한 그림체가 웹툰을 ‘정주행’하게 만든다.



▲ 로동신문 태양의 용철이

### 남북한의 문화, 유머코드를 한데 엮어 공감대 넓은 웹툰

사실 최성국 작가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평양 '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 8년간 근무하며 '령리한 너구리' 등 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전문가다. 촬영소는 북한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대우가 관찮은 편이지만, 같은 일을 하던 외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던 걸 안 뒤로 질병을 핑계 삼아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이후 그는 몇 년 간 북한에서 한국드라마 CD 등을 암거래하며 돈을 벌다가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됐고 추방, 탈북의 수순을 밟았다.

남한에 와서 한 만화 제작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좀처럼 적응할 수 없었다는 최성국 작가. 만화의 기본인 재미, 웃음 코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미'나 '당에 대한 충성' 등의 주제의식도 없고 전혀 웃기지 않는 만화에 열광하는 남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그림 역시 이곳의 기호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내 남한의 TV 프로그램들을 '전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점차 가슴으로 남한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최성국 작가는 매주 한 편 한 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갔고, 금세 수많은 독자 팬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웹툰 작가가 됐다.



▲ 유엔총회 개최에 맞춰 열린 북한인권관련 행사에서 발표하는 최성국 작가      오준 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함께 ▶

## 북한과 탈북민에 대해 관심 갖게 됐단 댓글에 보람 느껴

최성국 작가에게 가장 큰 보람을 주는 건 역시 댓글들이다. '북한 말씨 계속 따라 읽는 거 저 뿐이 아니지요?ㅋㅋㅋㅋ 신기하고 재밌어요', '와~ 성국씨 이게 진짜 실화라면 남한 사람 입장에서 보다가 뺨 터졌네요ㅋㅋㅋㅋ'와 같이 신기하다는 반응과 함께 '북한 감자 하고 남한 감자하고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우리나라 맥도x드처럼 햄버거 집이 있나요?', '북한도 대학 갈 때 저희와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 보나요?'와 같이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는가 하면, '적응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탈북자분들 파이팅입니다!'처럼 응원하는 글들이 많다. 또한 '저의 한국 정착시절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다음 회 기대합니다'와 같이 가끔 탈북민들의 댓글도 눈에 띈다.

최성국 작가는 '이런 반응과 격려가 너무 좋다'며, 특히 웹툰 덕분에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탈북민들의 삶에 공감하게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기억에 남는 독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분이 이 웹툰만 보면 웃는다는 사연을 보내 온 독자, 탈북민 엄마와 사이가 서먹서먹했지만 엄마의 경험을 웹툰에서 접한 뒤 함께 웃으며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다는 청소년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탈북민 동료와 함께 일한 직장인의 사연도 있다.

"한 남성분은 자기 회사에 탈북민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웹툰을 보고 나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 마음을 바꾸듯 내가 그린 웹툰도...

최성국 작가는 남한 사람들이 웹툰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것처럼, 북한 주민들 역시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빠르게 외부 세계를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부터 외국드라마나 영화들을 보긴 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매체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북한 주민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문화콘텐츠를 우리말로 듣는 것과 한국 문화를 그대로 접하는 건 하늘땅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나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대사가 나오면 ‘우리랑 똑같다’며 굉장히 친근감이 들어요. 이런 한국 문화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 마음속에 자유민주주의가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게 문화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최 씨는 웹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믿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서의 삶을 만화로 보여준다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공감대가 넓어질 거란 생각에서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 남한 만화는 토가 많고 설명이 길어요. 물론 쓸모는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북한 주민들은 이제 ‘남조선이 못사는 곳’이라고 생각진 않아요. 단지 내가 남한에 가면 어떻게 살게 될 지가 궁금하고 두려운 거죠. 저는 남북한의 문화를 다 겪어봤으니까 양쪽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화를 만들 겁니다. 그 어떤 최신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문화의 힘을 믿으니까요.”

## 남한과 북한 통일되면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거듭날 것



최성국 작가는 올 초 한 출판사에 정 직원으로 채용돼 월간지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그림 작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탈북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고, TV 방송에도 가끔 출연해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71차 유엔총회 개최시기에 맞춰 열린 대북 유입정보 관련 행사에도 참석해 세계인들에게 북한 이슈를 환기시키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렸다.

최 작가는 앞으로 통일이 되어 남북한의 기술이 합쳐지면 애니메이션 최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기술력이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기획 능력이 뛰어난 데다,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책임감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이란다.

“물론 북한은 미국식으로, 남한은 일본식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양쪽이 합쳐지면 굉장한 파워를 발휘할 것 같아요. 안해도 되는 것을 끝까지 가서 해버리는 게 우리들의 공통점이거든요. 허접한 게 없어요.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세계 최강의 만화들이 탄생할 겁니다.”

〈글.사진 / 기자회견〉



직접 만들어 함께 즐기는

# ‘당찬 초딩’들의 통일활동 체험기!

김해 율하초등학교  
통일STAR  
어린이회



지난 여름 김해 율하초등학교 통일STAR어린이회 교무실 앞에는 빨간색 우체통이 하나 생겼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적힌 쪽지를 받는 ‘통일우체통’이다. 어린이회 회의 결과 설치한 이 우체통에는, 낙서 장난을 한 쪽지들도 있지만, ‘왜 통일이 안 되는 건가요?’라고 묻거나 ‘우리나라가 왜 분단됐는지 과정을 알려 달라’는 어렵고 진지한 질문도 담겨있었다. 어린이회 아이들은 이 ‘통일우체통’을 비롯해 지난 6개월 여 동안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고, 홍보하고 친구들과 함께해 왔다. 아무리 자치활동이라고는 하지만, 가끔 말문이 막히거나 곤란해질 때면 어김없이 뒤에 앉아계신 선생님을 쳐다보며 까르르 웃던 율하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보자.



김서진 (6학년)

어린이회 회장. 파인애플이란 재밌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교내영어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던 수재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 주는 PD를 꿈꾸고 있으며,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문화가 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란다.



하의영 (6학년)

리더십 강하고 ‘꼭 부러지는’ 성격의 어린이회 부회장이자 합창부 단장. 6.25전쟁 중 북한에서 피난 오신 할머니가 계셔서 아산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단다. 꿈이 계속 바뀌고 있어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지우 (6학년)

어린이회 정보부장. 컴퓨터 공인 자격 증만 8개 보유, 방송자료를 비롯 해 PPT작업을 도맡아하는 홍보의 달인. 발표할 때 얼굴이 빨개져서 ‘토마토’라 불리지만 평소 논리정연 하게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 오보 없는 정의로운 기자가 되는 게 꿈.



신정민 (5학년)

5학년 부회장. 태권도와 권투 공인 단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달 한 번씩 요양병원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키리나 연주 봉사도 펼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을 보호해주는, ‘변호인’ 같은 검사가 되고 싶단다.



## 율하초 통일STAR어린이회, ‘올 한해 열심히 뛰었어요!’

**서진** : 저희 학교가 올해 통일교육연구학교로 지정돼서 어린이회 이름도 통일STAR어린이회로 바꾸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통일마크를 공모한 것이었어요. 이상한 걸 적어놓거나 장난으로 낸 것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었어요. (스티커 용지에 프린트한 통일마크를 건네며) 이거 드릴까요? 원래 학생들이 전교어린이회 활동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직접 PPT를 만들어서

방송을 통해 알렸더니 참가자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지우 :** 이 마크가 (각 교실에 설치된 TV 방송용) 홍보자로 PPT에도 쓰이고 전교어린이회에서 나눠주는 인쇄물에도 쓰여요. 우리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게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정민 :** 저는 경남 통일딸기 수확체험<sup>1)</sup>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왜 통일딸기인지 알아보고 딸기를 직접 따 본 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딸기를 안 먹고 박스째 집에 가져왔는데, 버스에서 다 눌러져 버려서 속상했어요.

**서진 :** '통일교육 주간'에는 북한말 퀴즈 행사도 했는데요. 학생회 임원들이 직접 모든 반에 찾아가서 북한말 퀴즈가 적힌 종이를 나눠주고, 맞힌 친구들을 추천해서 상품을 줬어요.

**의영 :** 400명 정도?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참여해줬어요. 퀴즈 답안을 받는 통이 있었는데 그 안에 가득 찰 정도였거든요.



**정민 :** 퀴즈 문제를 나눠주기 전에 먼저 TV를 통해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기가 아는 북한말을 댓글로 써 달라'고 홍보를 했는데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저희는 댓글로 접수한 북한말 중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각 수준에 맞게 문제를 골라 낸 다음, 각 반에 들어가 설명을 하고 퀴즈 문제를 나눠줬죠.

**서진 :** 그런데 막상 1~2학년 애들 반에 들어가 보니 뭘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긴 했어요.(웃음) 또 가까이 다가오더니 '어? 저 사람 TV에서 봤는데?'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웃더라고요. 답이 뭔지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 중 일부는 빈 칸으로 잘못 나간 것이 있었는데 거기애다 아이들이 '통일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말도 쓰고 '북한말은 한국말'이라고도 썼더라고요.

**지우 :** 아마 전교생이 거의 다 참여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는 퀴즈 행사이다 보니 애들이 맞히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e-행복한 통일 :** 북한말들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말과 어떤 점들이 다르던가요?

**의영 :** 고기겹빵? 햄버거라고 하지 않고 외국말을 고기겹빵이라는 고유어로 바꿔 쓴 게 재미있었어요, 그런 말을 생각했다는 게 신기하고, 고기겹빵이라고 하니깐 왠지 더 맛있게 느껴져요.(웃음)

**지우 :** 맞아요. 북한말에는 순수한 우리말이 많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언어를 통일해야 하잖아요. 한자어나 외래어보다 순우리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 통일우체통을 열던 날, 친구들의 호기심이 와르르~ 쏟아져

**의영 :** 끼 자랑 발표대회도 열었는데, 이번에 친구들 앞에서 처음으로 통일공연을 했어요. 남북한이 모두 아는 '고향의 봄'이랑 '우리의 소원', 북한 노래인 '대흥단 감자'를 불렀는데, 처음엔 화음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합창 선생님의 도움과 친구들의 노력으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물론, 6학년 남자 친구들은 변성기 때문에 목소리가 걸걸해져서 음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지만요.(웃음)

**지우 :** '통일우체통'이라는 프로그램도 했어요. 학기 후반에 시작한 건데,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지에 적어서 통일우체통에 넣고, 이 질문에 전교어린이회가 답변해주는 방식이에요.



**e-행복한 통일 :** '그걸 과연 넣는 친구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나요? 몇 개나 들어왔어요?

**서진 :** 전에 했던 통일 활동도 친구들이 잘 참여해줘서 이번에도 기대를 조금 하긴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꽤 많아서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지우 :** 장난말을 썼거나 허무맹랑한 요구도 있어서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했고, 너무 질문이 많아 하나하나 답변을 써주는 게 힘들긴 했지만, 우리가 성실히 답변을 해준 만큼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서진 :** 그 중에 한 학생은 '왜 통일이 안 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봐서 답변을 못해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음)

**의영 :** 제가 받은 질문지 중에는 6.25전쟁의 과정과 남북한 분단과정을 적어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과목에서 배웠던 것 위주로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요.

## 통일소원나무도 만들고 북한 전통놀이도 하고 싶어요!

**e-행복한 통일 :** (서진, 의영, 지우에게) 이제 곧 졸업이라 아쉽겠지만, 혹시 해보고 싶은 통일 활동이 있다면요?

**서진 :**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자면 통일 포스터 그리거나 통일 동화를 만들어서 북도에 전시하기, 북한에 대한 지식을 뽐내는 '통일 골든벨' 개최하기 등을 생각해 봤어요.

**의영 :** 우리 학교엔 탈북 학생이 없지만, 전 기회가 된다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북한은 지금 어떤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정민 :** 혹시 뽀로로가 북한과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통일 캐릭터를 만들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보고 싶어요. 또 학생회에서 이야기 중이긴 한데, 통일소원 나무를 만들어서 학교 현관에 놓아두고 '통일 쪽지'를 매다는 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우 :** 전 북한의 문화를 알아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거 같아요. 북한음식 체험하거나 북한 전통놀이 같은 걸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 통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행복한 통일** : 통일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서진** : 저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넓어지고, 국력도 강해지잖아요. 전쟁 날까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고 북한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구요.

**정민** : 지구에서 우리나라만 분단된 나라라고 하잖아요. 너무 오래되면 각각 다른 나라가 돼 버릴 것 같아요. 게다가 통일을 하면 인구가 많아지고 자원도 늘어나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으니 당연히 통일을 해야죠.

**의영** :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 함경도에 살다가 6.25전쟁이 나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대요. 하지만 그때 친척들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그분들을 다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우** : 의영이 할머니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들인데 평생 만나지 못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 한민족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안타깝워요. 또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려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해요. 통일이 되면 전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북한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을 같이 발전시켜 더 없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 다른 친구들에게도 통일이 필요한 걸 알려주려면?

**e-행복한 통일** :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친구들에게도 통일이 필요한 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 : 우리 학생회나 용기있는 친구들이 나서서 통일 이후의 상황을 연극으로 보여주면 어떨까요? 통일된 이후에 벌어질 일 중 좋은 점만 보여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의영** : 저는 토론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친구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찬성하는 친구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각자 입장을 말하게 한 뒤 통일의 장점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 : 통일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뉴스에서 보니까 탈북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통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경인데, 탈북 학생들이 와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통일을 하고 싶을까요? 북한 친구들이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친구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글/사진. 기획〉

1) 경남 통일딸기 : 농업으로 남북 간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돼 2010년까지 이어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딸기 조적배양묘와 모판흙, 약제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평양 내 국영농장으로 옮겨져 모종으로 키워지고 다 자란 모종은 다시 남쪽으로 옮겨 재배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중단됐다가

2014년 사업재개를 시도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있다.



### ❖ 사회주의 미감(美感)을 파고드는 욕망

신의주. 우리에게 신의주는 북한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의 단둥과 마주한 국경도시이자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신의주는 콧대 높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는 화장품, 신발, 종이를 비롯해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신의주가 인민생활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신의주의 여러 공장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은 역시 '신의주화장품 공장'이다. 신의주화장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봄향기'는 화장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다. 최근 평양화장품 공장의 '은하수'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향기'의 인기를 따라가지는 못한다. 신의주화장품 공장에서 최근 개발한 다기능성 천연화장품은 보습과 미백, 노화방지 기능을 다 갖춘 제품으로 피부 주름을 없애고 살결을 맑게 해준다고 선전한다. 개성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을 주성분으로 여러 기능성 재료를 첨가했기 때문이란단.



▲ 북한 호텔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국산 화장품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에 차이가 없다. 북한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아름답고 싶지 않을까. 예쁜 모습으로 꾸미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에는 여성의 미감이 사회주의적인 정서와 맞아야 한다. '사회주의 미감(美感)'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머리를 다듬을 때도,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할 때도 '사회주의 도덕교양'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미풍양식으로 포장된 보이지 않은 규제가 있다.

여성들의 옷차림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여성들은 자기 몸매와 계절에 맞게 모자와 수건도 쓰고 꽃양산도 쓰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기도 한다. 물론 자유로운 복장과 옷차림은 아니다. '생김새와 나이, 직업에 맞게'라는 도덕적 울타리를 친다. 차림새로 말하면 학교 선생님 차림 정도가 사회주의적 미감에 맞는 옷차림이 될 것이다. 머리를 물들이거나 짙은 화장을 하는 것 역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규제의 울타리가 있기는 해도,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까지 규제하지는 못한다. 미에 대한 동경과 열망은 체제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산 화장품은 물론 한국산이나 해외 화장품의 인기도 높다고 한다.



▲ 머리를 손질하는 북한 주민



▼ 해당화관에서 귀금속을 찾는 북한 주민

2012년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위무(慰撫)정치를 선보이고 있다. 소년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미래 권력의 기틀을 다졌고,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생산과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많은 생산을 통해 인민들에게 널리 보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평양화장품 공장을 시찰한 김정은이 "외국 마스크라는 물에 들어가도 유지되는데 북한산은 하품만 해도 너구리눈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품질이 좋은 외국 화장품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 '봄향기' 속에 담긴 장군님의 사랑(?)

북한의 화장품과 관련한 당의 정책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예술영화 '봄향기'라는 작품이다. 신의주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브랜드인 '봄향기'를 타이틀로 했다. 예술영화 '봄향기'는 김정일의 신의주화장품 공장 방문을 모티프로 하며, 신의주화장품 공장의 새로운 공정 기사로 근무하게 된 제대군인 출신의 영준이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인 '무균수'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이다.

군대를 제대하고 화장품 공장으로 오게 된 제대군인 영준은 '화장품의 품질이 좋아지려면 물이 좋아야 한다'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자 무균수를 찾아 나선다. 영준뿐만 아니라 공장 지배인과 기술자들도 순수한 무균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영준의 동료이자 선배 연구사인 지향이 있었다. 무균수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료를 분석하던 지향은 마침내 96%짜리의 무균성 샘플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지향은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샘플로 생각했다. 하지만 영준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샘플을 찾아 나선다. 이곳저곳을 헤매다 석화산 형제 바위 옆에 있던 샘플을 찾아내고, 밤새 샘플을 파기 위해 일하다 쓰러진다.



▲ 화장품을 소재로 한 예술영화 '봄향기'의 한 장면

병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영준은 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영준은 낙담하지 않고 다시 찾아 나서 자고 말한다. 영준을 걱정하는 가운데 마침 당에서 전화가 오고 장군님이 무균수에 관심을 갖고서 새로운 설비와 과학자들을 보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어 도착한 과학원 연구실장은 장군님께서 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자꾸만 세균이 나오는데, 이것은 채취하여 오는 과정에서 온도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냉동담차를 보내 시료를 채취·분석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한다. 새로운 분석 결과 샘플은 완전 무균수였다. 영준은 이 샘플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장군님이 찾은 것이라면서 감격해 한다.



영화 '봄향기'에는 화장품과 관련한 에피소드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현대식 공장이 생기게 된 사연이다. 화장품 공장이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겨우 화장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었다. 화장품 연구사 지향의 어린 시절이었다. 지향은 화장품을 몰래 훔쳐나가다 걸렸다. 지향이 화장품을 훔친 것은 손녀를 시집보내게 된 이웃집 할머니가 손녀를 그냥 보내기 안타까워 화장품을 구하려는 것을 보고는 몰래 빼내 할머니에게 주려 했던 것이다. 손녀에게 화장품 하나 줄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할머니가 빈손으로 돌아간 바로 다음날 장군님이 나타나 이름도 모르는 고급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인민들에게 먼저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서 현대식 공장을 지어주었다는 것이다. 영화의 엔딩은 화장품 공장이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고 각종 생산품이 넘쳐나면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장면을 비춰준다. 이제는 누구나 화장품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



▲ 예술영화 '봄향기'의 한 장면

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른 하나는 '장군님이 부대를 방문하여 각종 약품이며 치약을 돌아보면서 봄향기 화장품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이다. 무균수를 찾지 못해 지친 화장품공장 공장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힘을 내어 더욱 열심히 무균성 화장품 공장을 찾아내자고 결의한다. 최고지도자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다.

이처럼 북한이 영화까지 만들어 화장품 생산을 강조하는 것은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인민생활 분야의 품질향상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남한산 화장품을 비롯하여 일제, 미제 화장품까지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보다 좋은 화장품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인민생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사진.연합뉴스>





인생에는 공짜가 없고, 행복에 이르는 길 역시 밝아 나가야 할 순서가 있다. '인내'와 '노력'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남한생활에 하나씩 하나씩 적응해 온 20대 중반 진선이는 남한에 온 지 딱 열흘 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남한 생활을 온 몸으로 익혔고, 탈북 7년차가 된 지금 대학 졸업반이자 직장 새내기가 되어 화려한 비상을 시작했다. 진선이는 '어딜 가든 항상 주변 분들이 저를 좋게 봐 주신다'며 겸손해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미소로 만나는 사람마다 금세 자기편으로 만드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 어머, 게가 왜 옆으로 걸어요?

진선이의 첫 아르바이트 장소는 해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이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남한의 한 일식집에서 외식을 했는데 그때 먹어 본 해산물이 너무 맛있었던 탓에, 식당보조 채용공고가 열린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주방에서 냉동해산물을 해동해 손질하는 일을 맡았을 때, 처음 보는 생물(?)들이 많아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멍게를 좀 가져오라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미더덕도 그렇고 고니나 해삼도 그렇고요."

북한에서도 해산물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동태랑 오징어(북한말로 낙지), 임연수는 먹어 봤지만 함경북도 산간지대가 고향인 탓에 다른 건 아예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북한에서 장사를 좀 다녔는데, 청진 기차역에서 마른 낙지를 팔기에 두세 번 사먹어 봤어요. 동해에서 잡히는 낙지는 간이 딱 배고 맛있는 데다, 말리면 하얗게 분가루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달달해요. 동태는 소금에 절인 게 장마당에 나오지만, 명절 때나 사 먹는 게 다고요."

한편, 해물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얼려서 오는데 가끔 '생물'로 배달되기도 했다. 진선이는 어느 날 살아있는 게가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열어보고 '기절할 뻔 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사장님이 게를 싱크대에 쏟아놓으라고 해서 확 부었는데 뭐가 휙 떨어져서 옆으로 막 걸어가더라고요? 놀라서 이게 뭐냐고, 게가 왜 옆으로 가냐고 물었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진선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퇴근 무렵 진선이는 살이 퉁퉁하게 오른 찐 게를 맛볼 수 있었다. 게를 찌면 등껍질이 회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게살이 예술적으로 맛있고 게 껍질에 밥을 비벼먹으니, 뭐 이런 천국이 다 있나 하고 생각했다"며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기억만 있었을까. 힘든 일은 없었냐고 물었더니 욕도 부지기수로 먹긴 했단다. 미더덕이나 새우, 해삼 등을 깔끔하게 손질하지 않아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고 설거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야단을 맞기도 했다.

"처음에는 서러웠죠. 알바할 때 욕먹고 저녁에 집에 오면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공원 같은 데 앉아서 씩씩거리곤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은 거니깐, 다신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니까 네~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 맨날 다투던 친구 남한에서 '딱 만났어요'

그렇게 남한 사회를 차츰 익혀가던 중 진선이는 '소오름' 듣는 일을 겪었다.

"원수를 지면 언젠가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북한에 있을 때 엄청 싸웠던 친구 해미를 남한에서 딱 만난거예요."

여학생이 싸워봐야 얼마나 심했겠나 싶었는데 '머리카락 쥐어뜯기는 기본에, 얼굴에 상처를 낼 정도로 치고 박고 싸웠던 사이'란다. 여기 말로 '일진' 북한 말로 '패거리'라고 불리는 그룹의 양쪽 '짱'이었던 셈이다.

"윗동네 아랫동네라는 게 있는데, 저를 포함한 윗동네 애들은 (1998년 무렵, 자전거가 있는 집과 없는 집으로 주로 구분 되던) 잘사는 집 아이들이었고, 학교에서 소년단 위원장이나 사로총 부위원장 같은 걸 맡고 있었어요. 소년 휘장이나 넥타이 같은 걸 안 차고 오는 학생들을 되돌려보내고, 바지 칼날이 안 세워져 있거나 주름치마가 단정하지 않으면 벌점을 줬죠. 그땐 기세가 등등해서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남한에 혼자 와서 아랫동네 해미의 전화를 받으니까 진짜 섬뜩했죠."



해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떡장사를 하다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다. 진선이는 남한에서 해미와 처음 만났을 때 북한에서의 일로 '해고지'를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다지만 그건 기우였을 뿐, 이젠 '결혼 소식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친한 사이가 됐다. 해미는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치른 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진선이는 해미에게 살짝 질투가 났단다. 처음 재회한 날 '완전히 딴 애가 된 것 같았다'던 해미.

"북한에선 진짜 찌질 했거든요. 북한말로 머저리 같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너무 이뻐진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온지 얼마 안 돼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게다가 대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뚱그려져서 다시 물었죠, 정말이냐고. 세상에, 저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가 대학을 다닌다고 하니까 아, 저도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했지, 공부도 내가 더 잘했는데 난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죠."

<다음 호에는 미용실에 취직한 진선이의 초고속 승진기와 대학 입학 이야기가 게재됩니다.>

## '똥퇴비'로 키운 북한 배추가 김장에는 제격

짬뽕 같았던 한반도에 어느새 추위가 내려앉았다. 11월 초, 이맘때 북한 들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10월 당창건기념일이 지나면 '강내(옥수수)'를 베어내고 과일도 이미 떨어져 늦사과 늦배마저도 구경할 수 없는 이맘때, 서민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건 김장 무와 배추다. 남한은 11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김장을 하지만 이보다 추운 북한(함경북도)은 대개 10월 말이면 김장이 끝난단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인데, 그나마 김치는 좀 북한 음식 맛에 가깝다고 했다. "내(가) 식당 다 돌아보면 김치는 대부분 북한 김치하고 비슷해요. 여기에는 김치에다 비린내 나는 걸 많이 넣는데, 북한에서는 싸구재라는 작은 새우를 대부분 넣지요. 배추도 북한 것이 더 맛있어요."

한 탈북민 아주머니는 이렇게 남과 북의 배추 맛이 다른 건 북한이 인분, 즉 '똥퇴비'를 쓰기 때문이라 한다. 비료 대신 똥퇴비를 양분으로 크기 때문에 '남한 것은 승승한 반면, 북한 것은 조그맣고 수확이 좋지 않아도 엄청 달큰하다'고 말한다. 평소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과 밭, 산, 바다에서 나는 북한 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다.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작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북한 것의 향이 강하고 맛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같은 동해산 생선도 '북한 바닷고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적게는 20년, 많게는 50여 년을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입맛 자체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음식에 대한 기억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정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



면 고향의 음식뿐 아니라 북한에 남은 가족 친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질 듯 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글. 기자회견>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통일 공공외교 활동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합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박근혜 대통령 격려사 中)”

## 아세안·유럽 14개 협의회 92개국 500여 명 자문위원 참가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웨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아세안·유럽지역 '제17기 해외지역회의'를 개최했다. '하나 된 통일외지 다가오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열린 올해 연도 마지막 17기 해외지역회의에는 아세안·유럽지역 14개 협의회 92개국 499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 통일안보현장 시찰까지 3박 4일간 실 틈 없이 땀 흘린 일정에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고 토론에 임하는 해외 자문위원들의 통일 열정이 뜨거웠던 해외지역회의의 현장을 소개한다.



▲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박종범 유럽부의장



▲ 송창근 아세안부의장



해외지역회의의 개막식 전인 11일, 간부 자문위원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를 갖고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과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데 이어 12일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와 기조연설, 업무보고, 정책설명, 문화특강, 통일토크쇼, 분임토의 및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민주평통이 열어갑니다'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

서 아세안과 유럽지역 자문위원들의 활동상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북한 핵무기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이는 결국 ‘할 수 있다’는 의지의 싸움이고, 그 의지를 가진 분들이 바로 평통 자문위원들”이라며 “우리가 통일을 기원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면 통일이라는 행운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로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며, 해외에서 헌신해 온 그 기백과 열정, 의지를 이제 통일에 쏟아 부을 바로 그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종범 유럽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름이 가고 어김없이 가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지만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며, “해외지역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창근 아세안부위원장은 “사는 곳이 다르고 서로 알지 못할지라도 이곳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통일 의지로 하나가 되었고, 조국통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다”며, “평화의 한반도, 행복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숭선수범해 국민들을 결집시킬 공감대를 이끌어낼 밑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평통 업무보고와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설명 이어져

개회식과 기조강연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북한이 UN안보리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동포사회 및 국제사회의 통일지지기반 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최근 북한 핵실험 후 통일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향후 발전과제 등을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권 사무처장은 대북제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권태오 사무처장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홍용표 통일부장관



▲ 최광식 고려대 교수

김홍균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책설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과 엄중성, 글로벌 차원의 대북제재 압박, 북한인권 및 평화통일 외교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외교를 주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에 해외 자문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임토의 이후 진행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홍용표 장관은 현 남북관계의 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향후 통일준비 등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민여론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때”라며,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 전도사로서 통일 비전을 널리 전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특강을 맡은 최광식 고려대 교수(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는 드라마와 K-pop으로 상징되던 한류가 제조, 유통 플랫폼, 관광, 한식에 이르기까지 K-culture로 다양화, 다변화하고 있다며 한국 문화를 현대화된 콘텐츠로 만들어 비즈니스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류는 한반도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통일도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역설했다.

## 분임토의 시간, 현지 특성 고려한 통일 활동 방향 모색

이어 3시간여에 걸친 협의회별 분임토의와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14개 협의회는 현지 특성을 고려한 통일활동 방향을 논의한 후 △대북 제재와 통일·공공외교 추진방향 △재외동포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동포사회 화합과 결집 활동 △해외 탈북민 지원 △재외동포 청소년 통일 역사교육 실시 △북한 인권 개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서남아협의회 = 대사관·유관기관 및 한인단체와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 9개국 자문위원간 소통과 교류 강화, 6.25 참전용사 가족 물품 지원, 동포사회의 통일이지 결집 등

△동남아협의회 = 한인 청소년과 외국인 친구들이 2인 1조를 이뤄 치른 통일골든벨 행사 소개

△동남아북부협의회 = 글로벌 통일인재 양성 위한 차세대 참여 프로젝트 Teach For Korea 제안, 청소년·군인 대상 꿈 찾기 프로젝트, 탈북·한인 청년이 함께하는 차세대 봉사단 운영 등

△베트남협의회 = 한-베 가정 3세대 한마음 잇기 및 충효의 장, 효 강연 및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한-베가족 청소년문화캠프 지원, 통일 골든벨, 외교문화 페스티벌, 통일걷기대회 등

△호주협의회 = 2013년부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호주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 2016년 북한인권법 초안 작업에 돌입

△뉴질랜드협의회 = 웰링턴 차세대 통일포럼 개최,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오글랜드 탈북민 초청 강연회,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 오찬, 북한인권 탄압사진 전시회 등 개최

△모스크바협의회 = 통일골든벨 및 그림대회, 통일 창작 문예학술제 등 개최, 고려인 독립운동 후손을 중심으로 한 통일사업 제안



△블라디보스톡협의회 = 문화공연을 통한 재외동포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한복 패션쇼와 통일노래 콘서트, 전통문화공연을 통한 한민족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통일 관심 확대

△중양아시아협의회 = 고려인 차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에 역점. 한반도 역사 및 분단상황 교육, 한글교육 강화, 장학금 지원 및 조기유학, 한국방문 기회 제공 등 추진

△영국협의회 = '더 티나게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한다'는 에세이 발표. 통일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남유럽협의회 =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통일캠프, 중고등학생 대상 통일골든벨, 대학생 및 차세대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등 통일공감대를 위한 활동 전개

△북유럽협의회 = 한-EU 통일포럼 및 강연 개최, 통일정자 준공식, 북한 핵실험 규탄대회 개최, 문화체험 및 글짓기, 사생대회 개최 등 통일·공공외교 통한 유럽여론 결집

△중동협의회 = 통일골든벨 개최, 중동 GCC 6개국간 청소년 통일캠프 추진 예정, 중동 근무 북한 근로자 돕기 사업 제안

△아프리카협의회 = 한글학교나 한국어 학교를 통한 학생, 원어민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기적인 문화행사 및 세미나 개최





## 국방부 정책설명과 '북한 바로 알기'주제의 '통일 토크쇼' 진행

회의 3일차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의 정책설명으로 문을 열었다. 류제승 실장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기술 수준, 미사일 보유현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 및 태세, 동맹국과의 공조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드의 성능과 용도, 예산과 안전성 문제 등에 얽힌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이어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명철 (사)엔케이워치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 '북한 바로 알기' 통일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는 플로어에서 약 15개가량의 질문을 받아 패널들이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남파공작원으로 활동했던 곽인수 박사는 북한 내 한국문화 유입 정도를 묻는 질문에 현재 강원도와 황해도, 함경도 해안지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북한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3대 세습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민심이 악화돼 탈출 러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명철 대표는 두만강 유역에 홍수가 났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수문을 열어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데다 콜레라까지 발생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곽인수 박사는 "김정은 정권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명철 대표는 통일을 위한 노력과 함께, 탈북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외로움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끝으로 김영수 교수는 "북한을 알면 통일이 보이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의견 결집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번 토크를 통해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영수 서강대 교수



▲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안명철 (사)엔케이워치 대표



## 국방부 정책설명과 '북한 바로 알기'주제의 '통일 토크쇼' 진행

회의 3일차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의 정책설명으로 문을 열었다. 류제승 실장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기술 수준, 미사일 보유현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 및 태세, 동맹국과의 공조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드의 성능과 용도, 예산과 안전성 문제 등에 얽힌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이어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명철 (사)엔케이워치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 '북한 바로 알기' 통일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는 플로어에서 약 15개가량의 질문을 받아 패널들이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남파공작원으로 활동했던 곽인수 박사는 북한 내 한국문화 유입 정도를 묻는 질문에 현재 강원도와 황해도, 함경도 해안지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북한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3대 세습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민심이 악화돼 탈출 러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명철 대표는 두만강 유역에 홍수가 났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수문을 열어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데다 콜레라까지 발생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곽인수 박사는 "김정은 정권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명철 대표는 통일을 위한 노력과 함께, 탈북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외로움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끝으로 김영수 교수는 "북한을 알면 통일이 보이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의견 결집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번 토크를 통해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영수 서강대 교수



▲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안명철 (사)엔케이워치 대표





##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개최 박근혜 대통령, 해외 자문위원 초청 통일준비 활동 격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3일 아세안, 유럽, 아프리카 해외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통일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서 핵 포기 없이는 체제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각 지역 해외 자문위원들의 활동상을 하나하나 상기시켰다. 또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들이 남한에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탈북민 지원 및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강화 등을 언급하며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민주평통 2만 자문위원들이 국론결집과 국민단합의 선두에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열 수석부 의장은 자문위원을 대표한 감사인사에서 “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최선을 다해 돕고 풀뿌리 통일운동의 최전선에서 통일 의지를 전세계에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책제언 시간에는 자문위원을 대표해 정환희 독일 자문위원과 주양중 호주 자문위원이 정책을 제언했다. 정환희 자문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 될수록 이에 굴하지 말고 국론 결집과 한미동맹의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여 북핵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양중 자문위원은 “북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각각 제언했다.



청와대에서 가진 통일대화 이후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온 해외 자문위원들은 오찬에 앞서 남유럽협의회 정관우 자문위원의 낭독으로 ‘국가 안보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는 내용의 자문위원 다짐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2·3일차 공식 행사를 모두 마무리한 후에는 다 함께 모여 재능기부와 장기자랑 시간을 가지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으며, 회의 4일차인 마지막 날에는 육군 5사단과 6사단 등에서 통일안보현장 시찰을 실시했다.



참가소감

통일정책에 대해 알고  
탈북민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동남아남부협의회 황미리 자문위원

뉴스에서 밖에 접할 수 없었던 통일·대북·외교·국방 정책 설명을 직접 들으니 이해하기 쉬웠고, 한류를 어떻게 통일에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매우 인상 깊었어요. 또 두바이에서 만난 청년위원들을 이곳에서 재회하니 더욱 친근해졌고요. 민주평통에서도 청년위원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 역시 청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유럽협의회 정관우 자문위원

최연소 자문위원으로 발탁되다보니 이런 자리에 익숙지 않았는데, 이번 회의에서 통일정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터키에 돌아가 차세대나 어린 친구들에게 통일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탈북민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들을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협의회 자문위원 가족 / 맹현숙·김현숙

이번 회의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통일정책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고,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해 신뢰와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자문위원의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 이제 남아프리카로 돌아가면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 해외 자문위원들의 지위와 역량, 통일에너지로 승화할 것

## 아세안·유럽지역 자문위원 4인 4색 인터뷰



남북한 인구 7천600만, 해외동포 750만 시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이 비단 남북한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주요 강대국의 관심사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 동포들의 힘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적게는 십여 년, 많게는 200여 년 가까이 해외에 터전을 잡고, 각자 거주국에서 이룬 지위와 역량을 이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쏟아 붓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을 만나보자.

### ‘통일은 생존의 문제’ 해외 자문위원들의 역할 중요

박종범 유럽부의장(영산그룹 대표이사)



“한민족이 세계 선진국으로서, 문화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해외동포들도 통일에 대해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유럽지역 5개 협의회 61개 국가 356명의 자문위원을 대표하고 있는 박종범 유럽부의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주변국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마치 1900년대 일제 침략 전과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열강의 틈바구니 안에서 과거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은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외지를 결집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해요. 정부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나 해외 북한노무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주류사회와 언론에 폭로해 이를 이슈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주류사회 한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범 부의장은 현재 유럽지역회의의 경우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차세대 통일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에 살다보면 한반도 현실이나 통일에 대해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세대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자문위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남북 평화통일 기원 국토대장경(국내 초청), 한글학교를 통한 글짓기 및 웅변대회 실시, 청년 키퍼런스 등을 통해 1.5~3세대 젊은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함께

모여 통일을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해외지역회의의 행사 참여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자문위원들이 외교·통일정책 설명, 국방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

과 정부정책에 대해 매우 클리어하게 알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있어 많은 자문위원들이 모든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다 참가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앞으로 거주국에 돌아가 주류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범 부의장은?** 1999년 오스트리아에 '영산그룹'을 설립,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13개 국가에 공장과 법인회사를 세우는 등 종견기업으로 키워 냈다. 이후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회장, 유럽 한인총연합회 회장,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친선음악회, 한국 미술전시회, 태권도공연, K팝 댄스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등 한국문화를 유럽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 도이칠란트 한인단체, 북한 도발 규탄시위

▼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통일골든벨 퀴즈 결선대회, 통일강연회



고려인 3세이자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23년간 시의원을 다섯 번이나 역임하고 18년간 알마티시 고려인협회를 이끌어온 신브로니슬라브 수석부회장. 카자흐스탄 14만(비공식 집계) 고려인 동포사회를 대변하고 모든 동포단체들을 총괄해 온 신브로니슬라브 수석부회장은 중앙아시아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함께 고려인들의 한글교육과 통일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연회나 워크숍, 축제, 언론기고 등을 통해 동포사회에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고려인학생 유학비 지원, 노인대학 한국어 강좌 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소련 붕괴 후 50만 고려인들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로 흩어졌을 때 유일하게 고려인 수가 증가한 나라로, 고려인들 상당수는 만주벌판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고려문화중앙과 고려인협회 등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와 언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브로니슬라브 수석부회장은 연해주 태생인 부모님께서 모국에 가보고 싶어 하셨지만 한 번도 한반도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일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 부회장은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 남한에도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편견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소련 붕괴 전만 해도 고려인들이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던 남한 소식은 '학생 데모' 장면뿐이었다. 언론들은 시위 장면을 보여주며 남한이 북한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무렵 직접 와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신 수석부회장.

"6.25때 나라가 초토화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원도 없는 나라가 빠른 시간 안에 것처럼 발전했다는 사실이 신기했던 거죠. 고려인들의 자부심도 컸지만 카자흐스탄 내 다른 민족들도 '당신 모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실 고려인들 대부분이 함경북도에서 이주해왔기 때문에 북한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남북한 분단과 갈등을 접할 때마다 씁쓸함을 느낀다는 신 수석부회장.

"알고 있어요. 북한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ですよ. 그렇다고 해도 북한을 무조건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마음속에선 '한 나라이자 똑같은 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동독과 서독이 경제수준 차이로 통일 이후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처럼 북한의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통일 준

## 한국발전이 곧 고려인들의 발전, 통일·한글교육 지원할 것

신브로니슬라브 중앙아시아협의회 수석부회장 (고려문화중앙회장)



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려인들 역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브로니슬라브 수석부회장은?** 카자흐스탄의 도로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지역난방공사 및 수도 등 기타 국가 인프라 공사들을 주로 도맡아 하는 '알마티엔지스트로이'사의 회장. 알마티고려문화중앙 회장, 고려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모국어 교육 등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있다. 카자흐스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카자흐스탄 정부 표창 및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 카자흐스탄내 고려인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감사패를 받았다.

▼ 통역을 도운 카자흐스탄 국립대 김계르만 교수와 함께



## 국제사회 속 한국 위상 높여 통일기반 구축에 보탬 될 것

이기수 서남아협의회 간사  
(스리랑카 태권도협회 기술의장·국가수석사범)



일본의 가라테와 유도 도장 일색이던 스리랑카에 어느 순간 일본 무예가 사라지고 태권도가 걸린 태권도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스리랑카 경찰특공대와 대통령경호대, 국가정보원, 육·해·공군(육군은 특공대, 특수부대, 헌병대 등에 태권도가 정규 훈련과목 채택)을 비롯하여 18개 연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또한 당시 북한의 ITF 태권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WTF 태권도에 국기원 단증과 IOC 솔리데리티코스 이수증을 부여함으로써 남한 태권도로 통합, '태권도의 통일'을 이뤘다. 이는 1997년 KOICA(국제협력단) 협력요원으로 활동한 후, 정부파견 국기원 사범으로 스리랑카에서 활동해 온 이기수 간사가 이뤄낸 성과다. 20여 년간 스리랑카에서 태권도를 지도해온 이기수 간사는 현지의 태권도 영웅이 됐고, 태권도 역시 스리랑카군, 경찰 제 1의 무예가 되었다.

이기수 간사는 올해 현지 국영방송 드라마 일일드라마 '와루나(Color)'에 주연급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 1~5월까지 매일 총 100회에 걸쳐 방영된 이 드라마에서 이기수 간사는 약에 맞서 싸우는 무술도사 역할을 맡았으며 드라마 출연료 전액을 내전 피해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이기수 간사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해외원조를 하고 있지만 한국 태권도는 적은 자본으로 한국의 정신을 심고 한국을 알림으로써 향후 스리랑카를 이끌어갈 리더들에게 친한 정서를 갖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가 주류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문화·외교적 수단으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동안 이 간사가 지도해온 제자들 중 준경찰 만 1만5천 명이며, 그 가운데 몇몇은 군 장성이나 경찰서장 등의 위치에 올라 한인사회의 든든한 친구들이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에서 이기수 간사가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처럼 서남아협의회는 미얀마와 태국, 인도 등 9개국에서 85명의 자문위원들이 '열띤'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포사회 화합과 발전은 물론이고 주재국 사회 네트워크 구축, 공공외교 한국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의 이해 및 공감대 확산, 동포사회의 통일지지를 키우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남아협의회는 통일강연회와 통일음악회, 통일골든벨, 태극기 한반도 지도그리기, 청소년 역사캠프, 주니어평통(미얀마) 운영, 북핵 규탄대회 및 인권 사진전 및 동영상 상영회 등 작년 17기 출범 이후 무려 34개의 사업을 마쳤다.

이기수 간사는 최근 방글라데시의 북한식당 철수를 위한 자문위원들의 노력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동포사회 발전과 국론결집을 위해 나서며, 주재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 간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가면 통일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수 간사는?**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스리랑카에 파견. 경찰특공대를 지도하기 시작해 국가대표 코치, 감독, 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북한 주도의 ITF 태권도에서 남한의 WTF 태권도로 통합했다. 또한 경찰특공대, 대통령 경호대, 국가정보원, 경찰학교, 군인 등에게 태권도를 보급해, 한국과 스리랑카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했고, 대외적으로는 각종 국제대회 국제심판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 스리랑카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대통령에게 태권도 명예 9단 수여



▲ 전국 국방부(육·해·공군) 태권도 대회 메달 시상

민태영 자문위원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차세대들 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려 그 역량을 통일에너지에 집중시키는데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올인’하고 있다. 평소 여성과 차세대, 대한민국의 발전 등 관심이 많았던 민태영 자문위원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되었고 ‘통일’을 매개로 그동안 계획해 왔던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두바이 청년컨퍼런스에 참가한 경험 덕분에 그간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는 민태영 자문위원.  
 “두바이 컨퍼런스에 다녀온 후 영국 교포 1.5세~3세대들에게 통일문제를 알려야겠다고 맘 먹었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회장님, 간사님과 이야기한 결과 차세대 통일간담회를 개최해보자고 계획했죠. 그래서 얼마 안 있어 변호사회와 금융인협회, 의사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차세대들을 모아 통일간담회를 열었어요. 유호열 수석부위원장께서 이 행사에 연사로 참석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차세대 통일간담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영국문화에 익숙해진 2~3세대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제야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느꼈다, 왜 통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 기뻐하던 건 향후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큰 역할을 할 친구들이 ‘통일 과정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청하라’고 이야기해준 것이었다. 민태영 자문위원은 목표보다 더 크게 이룬 것 같아 보람됐던 간담회였다고 말한다.

이번 해외지역회의를 통해서도 느끼는 게 많다고 한다. 특히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정책 설명 도중 소개한 영화 ‘태양아래’에서 북한 소녀 진미가 소년단 입단 소감을 말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강하게 다가왔다.

“진미의 눈물을 보면서 ‘저 소녀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어요.(인터뷰 도중에도 민 자문위원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고였다.) 그런 애잔한 감정과 함께 정말 통일을 이뤄야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죠.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록 휴가를 내야했고 비용을 들여서 왔지만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꿈과 비전에 한발 다가간 느낌이에요.”

민태영 자문위원은 최근 대사관의 제안으로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에 종사하는 차세대들과 함께 한인 중고등학생 멘토링 까지 준비하고 있어 하루 24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한국 교포 아이들이 금융계, 법조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진미와 같은 북한 아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주는 일 자체가 삶의 자유고 의미”라고 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5~10년 안에 통일이 이뤄질 거라는 꿈을 갖고 있지만 독일보다 더 훌륭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간을 단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톱팀 플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민 자문위원 역시 통일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영 자문위원은?** 14살때 부모님을 설득해 혼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후 캐나다, 영국, 프랑스에서 성장했다.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국제기구

## 북한 소녀의 눈물을 닦고 자유를 선물해 주고 싶어요!

민태영 영국현의회 자문위원  
(세계한인변호사회 영국협회장)



OECD에서 근무하다 변호사가 된 이후 영국 런던의 매직서클 로펌인 앨랜앤오버리를 거쳐 현재 영국 런던 중국 공상은행에서 금융법, 국제경제시장, 파생상품, 세계금융규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 2016 세계한인변호사회 리더십서밋 & 유럽믹서 컨퍼런스 개최



- ◀ 영국 차세대와의 통일간담회
- ▼ 영국협의회 통일골든벨 사회를 맡은 민태영 자문위원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여론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민주평통 '2016년 제4~6차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분야별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직능 자문위원 의견 개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유호열, 사무처장 권태오)은 10월 5~6일과 25~27일 2016년도 제4~6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 4차 직능별 정책회의에는 경제·과학, 보건·복지, 환경·노동 3개 직능을 대표하는 전국 자문위원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영자 대전부의장의 환영사,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기조강연과 통일 토크콘서트(패널 :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병호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에 이어 각 분임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통일국론 결집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론결집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의지로 통일을 준비할 때 통일이라는 행운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이 앞장서서 8천만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분임별 토론은 주제별 6개분임으로 나눠 △대북 경제제재와 지속성 강화 방안(경제·과학) △북한 보건으로, 복지실태 및 인도적 지원 방안(보건·복지)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환경·노동)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2일 차에는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방송인 채가혜 씨의 ‘청년이 말하는 통일’이야기, 분임토의 결과 발표시간이 있었다.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우리의 현안 과제’ 특별강연회 열어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지난 10월 7일 영등포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권태오 사무처장을 초청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지역 주민 등 총 7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서 권태오 사무처장은 특강을 통해 “이번 강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안보현실과 대응방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국론을 결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단합된 국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원국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보에 있어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너와 내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통일좌담회 개최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주제로 진행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는 10월 6일 웨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적응단체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통일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함께했으며 ‘북한인권법’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좌담회를 주관한 김영숙 서울지역회의 여성분과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소개하며, “북한 정권이 핵무력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통일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경 회장은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통일의 장'에 참여하고, 구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여성이 앞장섰던 것처럼,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준비에도 실천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 통일시대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등

통일시대  
시민교실



▲ 통일시대 시민교실 (충남 공주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부산 기장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충남 보령시협의회)

민주평통 각 지역협의회는 통일·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시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9월 28일 공주대학교에서 포럼회원, 일반시민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고,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는 10월 4일 기장군청에서 대항기관장인 군수와 군의회 의장, 군민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7일 보령 문화의전당에서 포럼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 등과 함께 이 행사를 진행했다.

### ▼ 통일시대 시민교실 (부산 연제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충남 청양군협의회)



### ▼ 통일시대 시민교실 (경기 오산시협의회)

부산 연제구협의회(회장 안재권)는 10월 7일 구청에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12일 충남도립대학교에서 '2016년 대학생 통일공감 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2강을 각각 개최했다.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백대현)는 9월 29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전재석)는 28일 사천문화원에서 대항기관장 및 시민들과 함께 각각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진행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 (경남 사천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경북 김천시협의회)



### ▼ 통일시대 시민교실 (대구 북구협의회)



### ▼ 통일시대 시민교실 (부산 남구협의회)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최용남)는 30일 경북보건대학에서 관내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과 함께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진행했으며, 대구 북구협의회(회장 이광우)는 9월 26일 무태조야동 주민센터에서 통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또한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동천)는 9월 22일 부산남구청에서, 강원 영월군협의회(회장 김유영)는 28일 영월군여성회관에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 (강원 영월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경북 성주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대구 서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광주 남구협의회)

경북 성주군협의회(회장 김영조)는 28일 성주군노인회관에서,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최종석)는 21일 한국폴리텍6대학에서 각각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고, 광주 남구협의회(회장 서병연)는 23일 광주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시대 시민교실 강의를 진행했다.

## 강연회



▲ 전북지역 통일강연회 (전북지역회의)

▼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 특별강연회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전북지역회의(부위원장 송현만)는 9월 28일 전북도청에서 유호열 수석부위원장을 초청,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전북지역 통일강연회를 개최했고,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10월 7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권태오 사무처장 초청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 통일공감 강연회 (전북 완주군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 강연회(제12차) (부산 동구협의회)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완철)는 10월 10일 완주경찰서에서 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통일공감 강연회를 실시했고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는 10월 7일 '북한의 실상'을 주제로 범일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2016 찾아가는 통일 강연회(제12차)'를 개최했다.

자문위원  
연수



▲ 경기지역 자문위원 연수 (경기 이천시협의회)

▼ 자문위원 역량강화 통일안보 연수 (충북 충주시협의회)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10월 6일 박해진 경기부의장과 박태수 이천부시장, 경기 남부권 10개 지역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경기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으며,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9월 22~23일 제주도 일원에서 '2016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통일안보 연수'를 실시했다.

워크숍



▲ 대구달서구-광주북구협의회 자매결연 합동워크숍 (대구 달서구협의회)



▼ 제17기 자문위원 통일워크숍 (전북 익산시협의회)



▲ 수도권 청년아카데미 (강원지역회의)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10월 7일 달서구협의회 및 광주북구협의회 자문위원,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달서구-광주북구협의회 자매결연 합동워크숍'을 열었다.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는 9월 27~29일 '제17기 자문위원 통일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전제원)는 경기 및 강원지역 수도권청년자문위원들과 함께 10월 6~7일 '2016 수도권 청년아카데미'를 진행했다.

▼ 여성 통일 좌담회 (경기 가평군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안보교육 (경북 구미시협의회)



▲ 여성통일좌담회-동네방네 통일이야기 (전북 전주협의회)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0월 12일 군청에서 '국론결집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여성자문위원 및 가평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여성 통일 좌담회'를 진행했고,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는 관내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북 전주협의회(회장 나춘근)는 9월 26일 송천1동 주민센터에서 통장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여성 통일좌담회-동네방네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 지역주민 평화통일 연수 (전남 장성군협의회)





▲ 청년, 통일을 퍼실리테이션하다  
(경기 부천시협의회)

▲ 부산지역 청년 아카데미  
(부산지역회의)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안숙자)는 9월 29~30일 임진각 DMZ 일대로 '지역주민 평화통일 연수'를 다녀왔고,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9월 29일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청년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통일 청년 퍼실리테이터들과 함께 청년대학생들의 통일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청년위원회(위원장 도정식) 주관으로 10월 6일 '2016 부산지역 청년 아카데미' 1차 행사(총 3차)를 부의장 및 각 구 협의회장, 청년자문위원 등과 함께 진행했다.

## 통일문화 확산



▼ 평화통일콘서트 2016 (경기지역회의)



▲ 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 (경남 합천군협의회)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는 9월 28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지역주민, 탈북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콘서트 2016'을 성황리에 개최했고,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9월 27일 제32회 대야문화제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행사의 일환으로 백두한라예술단(탈북 예술인)을 초청해 공연했다.



▲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강원 동해시협의회)



▼ 평양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 (경남 거창군협의회)



▲ 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 (충북 옥천군협의회)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10월 9일 동해무릉계 특설무대에서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을 열었고,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는 9월 25일 거창한마당축제 폐막공연에 평양백두한라예술단을 초청해 한마당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으며,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박균상)는 제41회 중봉총렬제 기간인 10월 7일 백두한라예술단을 초청해 공연을 개최했다.

▼ 2016년 평양아리랑예술단 초청공연  
(강원 횡성군협의회)





▲ 통일준비 토크콘서트 (경북 칠곡군협의회)

▲ 통일맛이 홍보관 운영 (부산 사상구협의회)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10월 3일 횡성한우축제장 특설무대에서 '2016년 평양아리랑예술단 초청공연'을 열었고,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9월 28일 경북과학대학교에서 강동완 교수를 초빙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준비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7~9일 사상강변축제장에서 '통일맛이 홍보관' 부스를 설치하고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통일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국론결집과 평화통일기원 한마당 (강원 철원군협의회)



▲ 2016년 이북5도민회 망향제 (경기 시흥시협의회)



▲ 통일기원! 북한음식 체험행사 (강원 태백시협의회)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현대섭)는 10월 6~8일 태봉제에 참가해 '국론결집과 평화통일기원 한마당'을 열었고,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현)는 6일 평화의 댐에서 실향민 1세대, 미망인 등과 함께 '2016년 이북5도민회 망향제'를 지냈다. 강원 태백시협의회(회장 신원철)는 1일 태백제 행사의 일원으로 '통일기원! 북한음식 체험행사'와 전시행사를 진행했다.



▲ 북한음식맛보기-통일은 밥상에서 부터 (경기 과천시협의회)



▼ 피란시절 음식 체험 (부산 서구협의회)



▼ 평화콘서트 (경남 하동군협의회)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9월 24일 과천누리마축제에 '북한음식맛보기-통일은 밥상에서 부터' 부스를 작년에 이어 2회째 운영했고,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는 10월 7~8일 열린 하반기 '피란수도 부산 여행'에 참가해 사드 관련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피란시절 음식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경남 하동군협의회(회장 문수환)는 9월 29일 북천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장 주무대에서 '평화콘서트'를 열었다.



▲ 제15회 통일여성캠프 (대구 남구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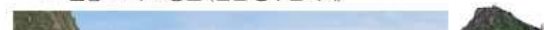
▲ 제주여성이 일으키는 통일바람! (제주지역회의)



▼ 통일공감 캘리그래피 공모전 (인천지역회의)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신복희)는 10월 8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통일여성캠프'를 열었고,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 여성위원회(위원장 남상옥)는 9월 28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지역 여성리더 및 여성자문위원 등과 함께 '제주여성이 일으키는 통일바람!' 행사를 실시했다.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희숙)는 9월 20일 인천대학교에서 대학생 및 청년단체 등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을 그리다(통일공감 캘리그래피 공모전)'를 개최했다.

▼ 울릉도 독도 방문 (인천 동구협의회)





▲ 제7회 평화통일일원 축구대회 (인천 계양구협의회)



▲ 우리영토 독도방문 캠페인 (강원 홍천군협의회)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는 9월 25일 인천계양구 계산체육공원에서 민주평통팀, 계양구청팀, 재향군인회팀 등 8개 팀이 참가하는 제7회 평화통일일원 축구대회를 열었고, 인천 동구협의회(회장 백승중)는 23~24일 울릉도 독도를 방문해 남북통일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22~23일 울릉도와 독도 현지에서 관내 각급 기관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 '우리영토 독도방문 캠페인'을 전개했다.

▼ 무료 일일차집 (경북 군위군협의회)



▼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통일공감 나눔봉사 (경북 의성군협의회)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본국)는 10월 6일 군위군민체육대회 전야제로 무료 일일차집을 운영하며 통일 공감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고,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8일 제13기 국토순례단 대학생들과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오걸수)는 10월 7일 '의성군민한마당 큰잔치'에서 '통일공감 나눔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안보현장 견학



▲ 통일안보 견학 (충남 태안군협의회)



▲ 통일안보현장견학 (대전 서구협의회)

민주평통 각 지역협의회에서는 통일안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충남 태안군협의회(회장 강철민)는 9월 22일 중국 상해 지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유적지를 찾아 통일안보 견학을 실시했고,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10월 7일 대전 둔산2동 통장단과 함께 임진각과 제3땅굴 등으로 통일안보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통일안보 현장견학 (경기 인산시협의회)

▼ 제3차 통일리더아카데미 - 국가안보현장견학 (서울 중구협의회)



▲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 (서울 노원구협의회)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0월 6일 자문위원 및 통일대학 제12기 교육생과 함께 임진각, DMZ, 제3땅굴 등으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고, 서울 중구협의회(회장 양우진)는 9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제주해군기지에서 '제3차 통일리더아카데미 - 국가안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해두)는 10월 12일 강원도 양구 두타연에서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을 개최했다.



▼ 아이러브 대한민국 꿈이 있는 통일 홍보관 (경북 상주시협의회)

▲ 통일역사체험학습 (전북 정읍시협의회)  
 ◀ 이승복기념관 안보현장 견학 (인천 중구협의회)



인천 중구협의회(회장 이승부)는 9월 23일 관내 사회단체장 및 구민들과 함께 '이승복기념관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고, 전북 정읍시협의회(회장 유남영)는 10월 6일 초등학교생, 인솔교사 등과 함께 '통일역사체험학습'을 실시했으며,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10월 7~9일 열린 상주 이야기 축제에서 '아이러브 대한민국 꿈이 있는 통일 홍보관'을 운영했다.

▼ 나라사랑 통일홍보관 (경북 청도군협의회)



▲ 국정원 안보전시관 방문 (경기 용인시협의회)



▲ 북핵 실험 및 미사일발사 규탄대회 (대구 수성구협의회)

경북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에서는 10월 7~9일 '2016청도반시축제' 기간 동안 '나라사랑 통일홍보관' 부스를 운영했고,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9월 23일 국정원 안보전시관을 방문했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9월 27일 구청에서 '북핵 실험 및 미사일발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남 진도군협의회(회장 이기암)도 9월 20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결의 대회를 가졌다.



▲ 북핵 실험 및 미사일발사 규탄대회 (전남 진도군협의회)

▼ 부대 위문품 전달 (강원 강릉시협의회)



◀ 태극기 무료 보급 및 게양운동 (경북 영덕군협의회)  
 ▼ 민주평통기 교체·게양 (전남 해남군협의회)



강원 강릉시협의회(회장 김화목)는 9월 27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삼척시 인근 부대를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체육용품 위문품을 전달했고, 경북 영덕군협의회(회장 최길동)는 9월 28일 축산항 일대에서 '태극기 무료 보급 및 게양운동'을 전개했으며,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9월 26일 문내면 울돌목에서 민주평통기를 교체, 게양했다.





## 통일미래세대 육성

### 통일 골든벨



▲ 중학생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 (전남 목포시협의회)



▲ 중학생 통일 골든벨 지역예선 (전북 부안군협의회)



▲ 중학생 통일 골든벨 경남대회 (경남 밀양시협의회)

민주평통 각 지역협의회에서는 **중학생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를 실시했다.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승하)는 10월 12일 목포 덕인중학교에서 '중학생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를 실시했고,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도 8일 군청에서 지역예선대회를 진행했으며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윤정일)와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는 13일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실시한 '2016년 중학생 통일골든벨 경남대회'에 관내 중학생들과 함께 참가했다.



▲ 중학생 통일 골든벨 경남대회 (경남 함양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현장 견학 (경기 양평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 (경북 문경시협의회)



▲ 통일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통일안보 체험 (경북 예천군협의회)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김수한)는 10월 11~12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통일현장 견학**을 실시했고, 경북 문경시협의회(회장 이재석)는 9월 24일 문창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등과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는 9월 30일 대창고등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등을 대상으로 판문점 및 DMZ 일대에서 '**통일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통일안보 체험**'을 진행했으며,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에서는 10월 12일 영주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경북 영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여성화합한마당 (경북지역회의)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서울 강북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멘티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서울 중랑구협의회)

경북지역회의(부위원장 한상화)는 9월 24일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복자)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여성화합한마당'을 개최했고,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양희자)는 10월 5일 평화전망대 및 강화역사박물관, 고인돌, 전등사 일원으로 '2016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10월 6~7일 제주도에서 북한이탈주민 멘티들과 함께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

▼ 사랑해요 KOREA~ 우리문화 탐사활동 (인천 서구협의회)



▲ 북한이탈여성 지원 바자회 (경기 화성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돕기 일일찻집 (강원 춘천시협의회)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하)는 세일고등학교 동아리 새터올과 9월 25일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사업 창의체험으로 '사랑해요 KOREA~ 우리문화 탐사활동'을 진행했고,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는 10월 1일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허인숙) 주관으로 '북한이탈여성 지원 바자회'를 실시했으며,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이든균)는 10월 7일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돕기 일일찻집을 열었다.



▲ 농작물 수확 (경기 광주시협의회)



▼ 목장체험 및 문화교류 활동 (서울 양천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그린나래 합동결혼식 (경남 창원시협의회)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는 10월 13일 퇴촌면 정지리 일대의 통일희망농장에서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등과 함께 농작물 수확 행사를 가졌고,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남궁금순)는 6일 경기 이천소재의 한 목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목장체험 및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길화)는 9월 28일 창원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 그린나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충남 홍성군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강원 속초시협의회)



▲ 안보현장견학 (경기 여주시협의회)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9월 26일 홍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고,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10월 5일 설악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현)는 10월 8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과 함께 경기 파주에서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고,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는 9월 27일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평택 제2군함대 사령부, 천안 독립기념관 등으로 '2016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안보견학 (대구 동구협의회)



## 지역 봉사활동

▼ 화성전문요양원 봉사활동 (대구지역회의&대구 수성구협의회)



▲ 태풍 수해 피해 주민돕기 성금 모금 (울산 남구협의회)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10월 13일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더불향봉사단,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와 함께 화성전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고,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태풍 차바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14일 성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 문화공연 후원 및 봉사활동 (경기 고양시협의회)

▼ 독거어르신 시설 방문 봉사활동 (제주 제주시협의회)



▲ 환경정화활동 (전남 구례군협의회)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박호영)는 10월 2일 시민자원봉사연합회가 주최한 제6회 노인의 날 효잔치에서 문화공연 후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고향심)는 8일 화북2동 소재 독거어르신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는 9월 24일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구례군 문척면 오산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해외 지역 통일활동





▲ 통일활동 기금 모금을 위한 2016년 유호열 수석부의장배 골프대회 (LA협의회)

미국 LA협의회(회장 임태량)는 9월 29일 위티어의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통일활동 기금 모금을 위한 2016년 유호열 수석부의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8,000만이 행복한 평화통일'을 주제로 해외동포들의 통일지지를 일깨우고, 통일기반구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골프대회는 200여 명의 단체 및 기관, 지역사회 인사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LA협의회는 매년 기금마련 골프대회를 통해 통일 활동 기금을 조성해왔으며, 이번에 마련된 기금은 통일준비 사업과 함께 연말 소외계층 돕기, 탈북민 자녀 장학금 지원, 차세대 세미나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북한 5차 핵실험 규탄대회 (시카고협의회)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9월 23일 다운타운 루글리 빌딩 앞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시카고협의회 자문위원은 물론 안보협의회 등 여러 단체와 탈북민 등이 참여해 '북한 핵 개발 중단'을 외쳤다. 시카고협의회는 북한이 9월 9일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체계로 복귀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북한인권 사진전 (남미서부협의회)

남미서부협의회(회장 이학락)는 9월 1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베자네다 거리에서 진행된 2016년 한인의 날 행사에서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했다. 약 3만여 명의 현지인들과 1만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은 즉각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주민의 자유와 인권보장, 평화통일에 동참하라'는 슬로건으로 30여 점의 북한인권 관련 사진이 전시됐고 한반도통일 홍보동영상을 상영했으며, 스페인어로 번역된 책자를 배포해 지역민들에게 통일 및 북한인권 이슈를 알렸다.

하와이협의회(회장 김동균)는 9월 14일 하와이 한인회 교



육관에서 한인 단체장 및 동포들과 함께 5차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및 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강력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 일보 하와이 지면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하와이 한 인사회 규탄 성명서'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 5차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한 규탄대회 (하와이협의회)



▲ 573돌 한글 창제 기념식 및 축하 행사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10월 8일 실리콘밸리 밀피타스 도서관에서 열린 제573돌 한글 창제 기념식 및 축하 행사에 참가해, 통일의를 고취하고 한글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종이접기와 부채춤, 외국인 중창단이 부르는 한글 노래 등의 프로그램 마련됐다. 밀피타스시는 2014년부터 한글날 직전 토요일을 '코리언 알파벳 데이'로 선언하고 지역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버려야 할 찬란하고 황홀했던 어제의 미련

경북 청송

“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

온통 울긋불긋 물든 계절의 흔적을 따라 걷다보니 알팍한 운동화 밑창이 무겁게 느껴진다. 머무를 때는 떠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일상인데, 막상 떠나오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발목을 잡아 끈다. 어쩔 수 없이 그간 차마 버리지 못했던 감정의 잔해들을 꺼내본다. 버려서 잊혀져야 할 것과 간직해 오래 두고 꺼내 보아야 할 것들을 분리한 후 버려져야 할 것들에는 그 어떤 이유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털어낸다. 물론 오늘이 생애 절정의 그 날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꼭 털어낸 그 무게만큼 발걸음이 가벼워짐을 부인하지도 못한다. 경북 청송에서 나무가 버리게 될 선명한 삶의 이유를 만났다.

## 계절의 자락이 남긴 붉은 여운, '주왕산국립공원'

옛적에는 수 백리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고개를 넘고도 깊은 계곡을 따라 한참을 더 다리품을 팔아야 달을 수 있었던 곳, '(길이 멀어) 울면서 찾아와 (떠나기 아쉬워) 울면서 떠난다'는 고장은 더 없이 고왔다. 그런 까닭에, 발그레 뺨을 붉힌 사과 알이 깊은 밤 알알이 불을 밝힌 전구 알처럼 반짝이는 시골길을 정처 없이 달리다 길을 잃었다. 낯선 길 위 계 갈 길을 찾기 못한다는 막막함도 잠시 옷자락이 스친 자리마다 붉은 여운을 남긴 계절의 잔상에 시선이 멈춘다.

멀리 덩치 큰 기암괴석 주변으로 물든 단풍이 유난히 수줍게 물들은 곳이 바로 주왕산국립공원이다. 태백산맥의 지맥으로 이루어져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설화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주왕산은 설악산, 월출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암산으로 불리는 곳. 더불어 가을 단풍이 굵기로 유명하다. 속이 깊은 산이라면 으레 그렇듯 달아진 문살의 문양으로 그 나이를 가늠케 되는 사찰 하나를 입구에 두고 산자락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폭포와 계곡이 번갈아 방문객을 맞이한다. 다행히 주왕산은 암산치고는 등산로가 평탄하며, 산행자의 선택에 따라 걸어볼 만한 산책로도 제법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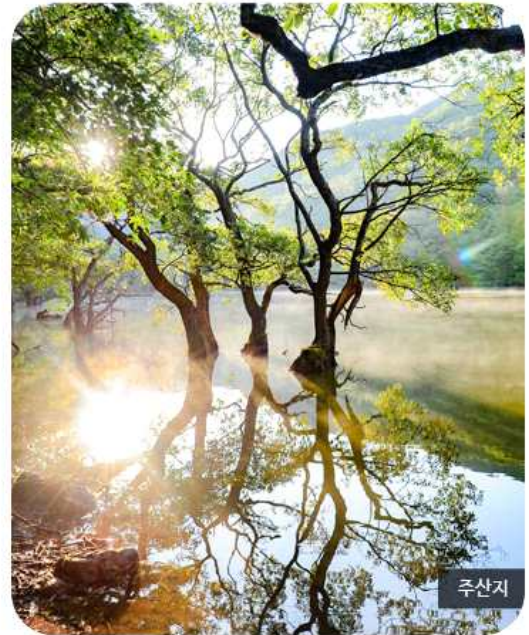
돌다리를 건너 중국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협곡사이를 지난다. 물이 맑아 제 속을 감추지 못한 용추폭포 앞에 잠시 머무르다, 다시 자연이 조각한 또 다른 협곡을 지나 용연폭포, 절구폭포와 마주한다.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지는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에 몇 번이고 발걸음이 멈추고, 감탄사가 터진다. 새하얀 학이 나와 부리를 손질하고, 흰 수영이 긴 신선이 나와 헛기침을 해도 놀랍지 않을 법한 풍경. 그중에서도 절곡계곡 주변은 길이 험한 대신 손이 덜 탄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어 추천한다.

## 어떤 맑음은 고여 위안이 된다, '주산지'

서쪽을 제외한 대지의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장은 이웃집에 마실 한번을 나갈 손치더라도 고개 한 두 개쯤은 거뜰히 넘어야 한다. 오죽하면 이름까지 청송인 고장. 그리 산이 깊으니 솟아오른 물 역시 깨끗한 것이 당연하며, 물이 고여 이룬 풍경 역시 장관이다. 비록 그것이 사람 손을 탄 장소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너른 들녘 곡식의 낱알을 살찌우기 위해 농수로 축조된 300년 된 저수지는 그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고, 축조된 이레 단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내 부지런한 백성의 속을 태우지 않았다. 사실 자리를 만들어 물을 채운 뚝안이 사람 손을 탔을 뿐, 품어 키워낸 것은 산이었다. 그러니 굶은 가지를 물가에 드리운 왕버들 나무 사이로 느릿한 물안개가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새벽녘의 황홀한 풍취에 본래 저수지임을 잊는다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애써 떠오르지 않는 형용사를 내뱉기보다 그저 고요히 머무르기를 권한다. 이유 없는 조급함에 쫓기듯 달렸던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은 사이 가슴에 맑은 물기가 여린다.

청량한 물은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맛도 달고,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다. 톡 쏘는 맛이 빈말로도 '맛이 좋다'할 수는 없지만 몸에 좋다 하니 달기약수 한 대접 들이키는 것도 청송여행의 묘미일 것이다.



## 고운 햇살이 머문 자리, 설레는 달빛이 머물 자리, '송소고택'

한 자리에 오래 뿌리 내리고, 그 생을 이어 온 태곳적 생명력이 넘치는 고장의 시간은 쉬이 가능하기 어렵다. 겨우 제 발 끝으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밟힐 무렵에야 그제야 시간의 존재를 떠올리게 된다.

조선 영조시절 만석꾼이 쌓아올린 ㅁ자형태의 저택을 거닐 때는 거침없던 가을 햇살마저 점잖을 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흔 아홉 칸 고택, 높은 쪽빛 기와지붕 아래 윤이 반들반들 나는 툇마루에 앉아 달랑달랑 다리를 흔들고 있자니 게으른 졸음이 쏟아진다. 다행히 품이 넉넉한 고택은 낯선 길손에게도 구들장을 품은 제 집 아랫목을 내어준다. 더욱이 긴 오수로 인해 밤잠을 설치게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문살 위 곱게 발라진 창호지를 섬세히 더듬는 달빛과 별빛을 구경하다보면 긴 가을밤도 한 순간이다.





길거나 혹은 짧게만 느껴졌던 밤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지금은 비워진 만큼 가벼운 발걸음이지만 분주한 하루의 일과 속 금세 버거울만치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무게로 인해 떠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겁내지 않아도 된다. 넘치게 채워진 것들은 다시 비워내면 된다.

<글.권혜리 / 사진.신영민 / 사진제공.청송군청>



# 가을빼꾸기 같은 소리 말아요!

\* 가을빼꾸기(북한말) = 믿을 수 없는 헛소문(남한말)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 고소한 개성배추 제대로 담은, 개성보쌈김치

보쌈김치는 북한 개성지방의 향토음식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소를 넣고 보자기 싸듯 감싼 독특한 모양새가 인상적이다. 특별히 개성에서 보쌈 형태의 김치가 발달한 이유는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배추의 속이 연하고 잎이 길며 맛이 고소해 소를 감싸는데 알맞기 때문이라고 한다. 겨울철 낙지, 굴, 밤, 배 등 다양한 재료들을 잔뜩 버무리려 연한 배춧잎으로 곱게 감싸 만드는데, 배춧잎을 차례로 벗기면 빨갈게 익은 김치가 자리하고 있어 보는 맛과 먹는 맛을 동시에 만족시켜준다. 겨울철 별미 보쌈김치를 만나보자.

## 요리재료 (배추 반 포기 분량)

배추 반포기, 무 100g, 밤 4개, 배 1/3개, 미나리 40g, 실파 30g, 낙지다리 100g, 갓 1큰술, 표고버섯 30g, 대추 4개, 고춧가루 1/2컵, 새우젓 1/3컵



## 요리방법



1 배추를 소금에 절여 씻고 물기를 뺀 후 잎 부분은 보자기용으로 자르고 윗줄기 부분은 깎둑썰다.



2 무와 배도 배추와 같은 크기의 편으로 썰다.



4



3 미나리, 실파는 3cm 길이로 썰어주며, 밤은 동글납작하게 편으로 썰고, 대추는 곱게 채 썰고, 잣은 고깔을 뚫다.



4 낙지다리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뒤 3cm 길이로 썰고, 표고버섯은 뜨거운 물에 불려 채 썬다.



5 마늘과 생강의 반은 채 썰고 나머지는 다져서 고춧가루, 새우젓과 함께 고루 섞어 김치 양념을 만든다.



6 배추와 무를 준비한 양념과 함께 버무린다.



7 이후 미나리, 실파, 배, 낙지 등 모든 재료를 넣어 잘 어우러지게 버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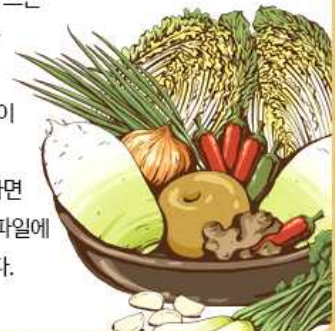
8 그릇에 절인 배춧잎을 깔고 김치소 버무린 것을 집어넣은 뒤, 소복하게 채우면 완성.

〈글.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궁중요리로 시작돼  
개성 대표음식으로  
자리잡은 보쌈김치**



보쌈김치는 숙과 배추를 합치는 보통의 김치와는 달리 넓은 배춧잎으로 김치를 예쁘게 감싼 형태인데, 조리의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품격 높은 김치다. 대한제국 궁중 음식을 도맡았던 요리사 안순환에 따르면 보쌈김치는 궁궐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일반인들은 맛보기 어려웠으나, 개성의 경우 부유한 상인이 많고 보쌈에 적합한 배추가 생산되다 보니 보쌈김치가 개성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됐다. 상인들이 행상을 나가면 여성들은 정성껏 담은 보쌈김치를 잘 보관했다가, 4월 초파일에 집으로 돌아온 남자들에게 수고의 의미로 대접했다고 한다.



감성의 계절 가을

# 가을엔 '4행시'를 써주세요!

- 낭만청년, 천고마비, 가을단풍 등 가을을 상징하는 네 글자로 4행시를 지어보세요.
- 단, 4행시 안에 '평화' 또는 '통일'이라는 말을 꼭 넣어 주실 거죠?

- 응모기간 : 2016. 11. 01. ~ 2016. 11. 20.
- 당선자수 : 5명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 (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시상내역 :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10초면 완성!

# 남한말-북한말 같은 단어 선긋기

e-행복한통일에서는 웹툰을 통해 북한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같은 의미의 남한말과 북한말을 각각 짝지어주세요.  
1번과 4번의 같은 말만 찾으시면 됩니다.

- |         |         |
|---------|---------|
| 1) 스프링  | a) 솜바꼭질 |
| 2) 두벌자식 | b) 다이어트 |
| 3) 숨을내기 | c) 속옷   |
| 4) 몸가기  | d) 손자손녀 |

정답 예 : 2번-d, 3번-a



■ 응모기간 : 2016. 11. 01. ~ 2016. 11. 20.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 (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 수 : 30명

■ 시상내역 : 편의점 음료교환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통일이란 글자를 찾아보세요' 이벤트

번호	닉네임	이 메 일
1	박미진	**rkmj57@naver.com
2	이정숙	**a78sta@naver.com
3	김석준	**24705@naver.com
4	통일해바라기	**esukangel@hanmail.net
5	김영환	**gus87@naver.com

### '독서의 계절 가을, 통일지식을 겨룬다' 이벤트

닉네임	이 메 일	닉네임	이 메 일
최성지	**e2837@naver.com	안혜경	**je865753@naver.com
에버그린	**osungs@hanmail.net	대면자	**uhjh@dreamwiz.com
두장이	**kandvv@gmail.com	임미지	**j770921@naver.com
공수환	**sh1023@nate.com	윤선비	**onyeohwan@hanmail.net
김희용	**y0425@hanmail.net	현종	**toberstars@naver.com
호갱s7	**ndori3986@naver.com	거친토끼	**sse2@naver.com
양연지	**over7112@naver.com	장대진	**521214@naver.com
최경남	**swo772002@naver.com	김수현	**45sh@redcross.or.kr
최정	**484@naver.com	jack	**ying-kid@hanmail.net
윤수경	**sap19@hanmail.net	수니	**1265@naver.com
연가을	**nmisexy@naver.com	웃으면 복와요	**240mk2@paran.com
구자완	**w0815@naver.com	최희정	**sol0172@naver.com
소나기	**ette2414@nate.com	제라툴	**ns8707@hanmail.net
윤승재	**ngdomysj@naver.com	야무꼭지	**j07@nate.com
무간도	**daga@paran.com	강요	**c0833@hanmail.net





##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18-6473	9	010-**50-4437
2	010-**28-7169	10	010-**71-5104
3	010-**33-7044	11	010-**63-4175
4	010-**50-7091	12	010-**86-5623
5	010-**18-4922	13	010-**06-3180
6	010-**88-9326	14	010-**33-5933
7	010-**09-7195	15	010-**04-0210
8	010-**96-1833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